

# 정유기업, 품질검사용 연료 따로?

환경부, 불시 조사결과 황·벤젠 함유량 급증 ... 비껴가기 조사 의혹

정유기업들이 판매하는 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품질이 정부의 불시 현장조사 결과 종전과 달리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정유기업들이 사전에 엄선된 연료만을 시료용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004년 1/4분기에 SK와 LG-Caltex정유 등 5개 정유기업을 불시에 방문해 경유와 휘발유 품질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황 함유량이 각각 70ppm, 22ppm을 기록해 2003년 4/4분기에 비해 43%p, 22%p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5월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3년 말까지 평균 0.3%를 유지하던 벤젠 함유량도 0.4%로 높아졌다.

환경부는 2003년까지는 정유기업들의 안내로 저유탱크에서 품질 조사를 벌였으나 2004년부터는 매달 2회씩 불시에 각 정유기업의 출하대에서 시판 직전의 연료를 직접 채취해 분석하는 형태로 조사방법을 바꾸었다.

조사 결과, 최대 정유기업 SK는 휘발유 황 함유량이 18ppm에서 22ppm으로 높아져 2003년 최고 수치(20ppm)를 넘어섰으며, LG-Caltex정유는 2003년 말까지 29ppm으로 떨어진 경유 황 함유량이 45ppm으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인천정유는 경유 황 함유량이 30ppm에서 150ppm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고 휘발유 황 함유량도 22ppm에서 49ppm으로 늘어났다.

반면, 수입기업들은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유량이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여 나오는 황과 발암물질인 벤젠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 때문에 연료 품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환경부는 조사를 통해 정유기업들이 그동안 품질이 좋은 연료를 골라 조사용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년부터는 주유소에서 판매중인 연료를 채취해 품질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5/28>